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석유산업과 강경성 과장(044-203-5220), 배성준 서기관(044-203-5224),
김정운 사무관(044-203-5227)

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 사업 본격 추진
- 울산북항 상업용 저장시설 구축/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출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2014.1.8(수) 웨스틴조선호텔에서 「**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사업 합작법인 출범식**(이하 출범식)」을 거행하였음

○ 동 출범식에는 **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,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, 일코 혹스트라 로얄보팍* 사장, 나세르 알-마하셔 S-OIL 대표이사, 폴 멩크펠트 주한네덜란드대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음

*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세계 31개국에 85개 터미널(총 188백만 배럴 규모)을 운영 중인 세계 제1위의 석유·화학제품 탱크터미널 운영업체로, 2012년 매출액은 13.1억 유로, 임직원은 6100여명

□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여수, 울산 등에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, **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물류와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미국, 유럽,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발전**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임

○ 금번 출범식은 지난해 6월 준공식이 개최된 여수 저장시설에 이어 **울산지역의 상업용 저장지설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**되는 계기일 뿐만 아니라, **세계 제1위의 탱크터미널 운영업체인 보팍(Vopak) 그룹이 참여**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

○ 금번 출범하는 합작법인인 '코리아오일터미널(주)'은 **2017년까지 6,222억원을 투입**하여 울산북항에 **총 990만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 터미널을 건설**하고 이후 운영을 전담할 계획임

* 코리아오일터미널(주) 지분은 한국석유공사 51%, 보팍 그룹(로얄보팍·보팍 아시아) 38%, S-OIL 11%로 구성

□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사업은 **산업부와 해수부가 협업을 통해 추진**하는 사업으로, 울산항만공사가 지난해 11월 항만 하부시설 축조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바 있으며, **오늘 출범한 합작법인은 상부 상업용 저장시설의 건설·운영을 전담**함

□ 윤 장관은 출범식에서 "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**기존 정제중심의 우리 석유산업이 물류·가공·거래·금융 등 서비스산업과 융복합 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**하는 **에너지분야 창조경제 구현의 좋은 사례**가 될 것"이라고 평가하였음

○ 향후 산업부는 항만접안시설 및 상업용 저장시설 구축 등 물리적 인프라 정비와 더불어, **석유 거래/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**와 **트레이딩 및 석유거래 관련 금융서비스 역내화를 위한 제도개선**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임

* 오일허브사업의 생산유발효과 4조4647억원, 임금유발효과 6059억원, 고용유발효과 약 2만2천명, 울산지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9481억원 수준으로 추정(2009년 KDI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)

* 싱가포르의 오일허브 구축/운영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전체 GDP의 11.5%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

붙임 : 1.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사업 합작법인 개요
2. 오일허브 개념 및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배경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배성준 서기관(☎ 044-203-5224), 김정운 사무관(☎ 044-203-52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동북아오일허브 울산북항사업 합작법인 개요

1. 추진경과

□ 울산북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·민간투자적격성조사('09~'10, KDI), 국가항만기본계획 반영('10.4월), 지경부-국토부간 역할을 분담 공동추진 합의('12.6월)

* 지경부·석유공사 : 상부탱크터미널 사업투자자 모집, 합작법인 설립후 사업 추진
* 국토부·울산항만공사 : 하부항만시설 조성후 탱크터미널사업자에 장기 임대

□ 울산북항사업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VOPAK(和蘭), S-OIL과 투자합의 기본원칙을 체결('13.10월) 하였고, 합작투자계약 서명(12.27)

< 석유물류인프라 구축계획 >

구 분	여 수(상업운영중)	울 산(진행중)	
		북 항(1단계)	남 항(2단계)
사업부지	262천㎡	295천㎡	604천㎡
사업기간	2008~2012	2010~2017	2015~2020
사업규모	820만B(원유 350, 제품 470)	990만B(제품)	1,850만B(원유)
접안능력	4선석(1~20만톤)	5선석(1~12만톤)	3선석(5~30만톤)
총사업비	5,170억원(민자)	6,222억원(민자)	9,948억원(민자)

2. 합작법인 개요

□ 회사명 : Korea Oil Terminal Co., Ltd

□ 자본금 : 24억원

□ 지분구조 : 석유공사 51%, Vopak Group** 38%, S-OIL 11%

* 향후 국내/외국 회사 2~3개사 추가 예정(석유공사·Vopak Group 지분 조정)

** Royal Vopak : 세계 1위의 석유·화학제품 탱크터미널 회사(본사-네덜란드), 세계 31개국 85개 터미널(188백만B) 운영, 매출액 €1,313백만('12년), 임직원 6,099명('12년)

□ 총사업비 : 6,222억원(저장탱크, 입출하설비, 기계·소방설비 등 설계·건설비)

□ 경영진 : 사장(석유공사 지명), 부사장(Vopak 지명)

* 이사회(8명) : 석유공사(3명), S-OIL(1명), Vopak(4명) → ('14.5월) 석유공사·Vopak 각 2명(지분 24% 이상), 기타 참여사 각 1명(지분 11% 이상)

□ 주요사업 : 탱크터미널 건설·운영, 고객유치, 마케팅 등

3. 추진일정

□ 이사회 개최 완료(12.26) → 합작투자계약 서명 완료(12.27) → 기업결합 신고(공정위) → 법인설립 등기(1.20. 예정)

붙임 2 오일허브 개념 및 동북아오일허브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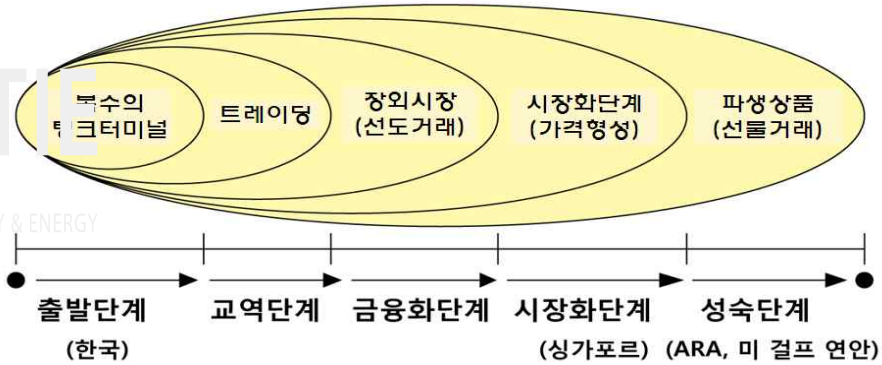
1. 오일허브 개념

□ **대규모 석유정제/가공/저장시설**과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**석유거래, 물류 및 관련 금융서비스** 등을 총칭

○ 오일허브에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규모의 석유 거래를 바탕으로 **정제, 가공, 수송, 보관 등이 활성화**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

* 해외 오일허브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**싱가포르의 경우 GDP의 11.5%, ARA의 경우 네덜란드 GDP의 7.3%** 수준으로 평가

< 오일허브 발전단계 >



2. 세계 3대 오일허브 현황

구 분	저장시설 백만B	정제능력 백만B/D	소비지역/특징	거래소	경제효과
미국 (걸프연안)	109.6	7.14	미국 전역/내수형	NYMEX	-
유럽(ARA*)	87.4	2.04	서유럽/배후지역수출형	ICE	네덜란드 GDP의 7.3%
싱가폴 (Jurong)	52.2	1.39	동남아, 중국/중계수출형	SGX	GDP의 11.5%

* ARA : Antwerp(벨기에), Rotterdam, Amsterdam(네덜란드)

3.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배경

가. 국제 석유수급 환경변화

□ 세계 **석유소비의 중심축이 OECD 국가에서 신흥국으로 이전**

○ 경기침체, 기후변화대응, 효율향상 등의 영향으로 OECD 국가들의 석유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흥국 소비는 매년 크게 증가

* 향후 5년간 OECD 국가의 석유소비는 연 0.2~1.1% 감소하고, 신흥국은 2.7~3.2% 증가하여 세계 석유소비는 연평균 1.2% 증가할 전망(IEA)

□ **석유정제능력도 선진국에서 개도국 중심으로 급속히 개편**중

○ 석유소비 감소로 선진국 정제시설의 가동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제능력을 지속 확충

* '08년~'12년중 아태지역의 정제능력은 400만b/d 증가한 반면, 미국/유럽 국가들의 정제능력은 80만b/d 감소

나. 동북아지역 신규 오일허브 필요성

□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성장, 역내 국가들의 투자 확대 등으로 **석유소비와 석유제품 물동량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**하는 지역

○ 동북아지역 석유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19%(16.4백만B/D, '11년 기준), '03~'11년간 연평균 석유소비 증가율은 3.9%(타지역 1.9%)

* 세계 석유소비 비중('11년) : 중국(2위, 10.6%), 일본(3위, 5.0%), 한국(9위, 2.7%)
* 동북아/극동지역 역내 석유거래는 '11년 50억불에서 '12년 129억불로 크게 증가

□ 러시아 시베리아 원유*, 캐나다 비전통석유** 등의 새로운 석유공급원 등장으로 **동북아 주변 석유물류 환경 급변**

* '12.12월 시베리아-태평양 송유관 완공으로 160만B/D, 연간 3.1억B 공급
** 태평양쪽으로 원유/샌드오일 수송 송유관 부설중('14년 준공시 112만B/D 공급)

□ 그간 아시아 전체 오일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던 **싱가폴은 동남아 지역 오일허브로 축소**되면서 중국남부를 경계로 아시아시장 분리경향

* 싱가폴의 석유제품 수출물량 비중 : ('06)동북아 18.4%, 동남아 66.7%
→ ('11)동북아 9.1%, 동남아 73.5%

다. 한국의 동북아오일허브 입지환경

□ 지정학적 위치, 석유산업/항만인프라 발달,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 고려시 동북아 오일허브 입지로는 한국이 가장 유리

○ 중국은 얕은 항만 수심, 내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제력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일본은 높은 항만물류비와 잦은 태풍 등이 약점으로 지적

< 한국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관련 SWOT분석 >

강점 (Strengths)	약점 (Weaknesses)
-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지 - 높은 석유제품 생산능력 및 수출규모 - 석유산업 클러스터 구축 - 정제 기술 경쟁력 보유 - 양호한 물류 및 항만시설 보유 - 석유비축시설 규모가 큼	- 상업용 저장시설 부족 - 부지조성 비용 높음 - 지원 인프라 미흡, 외국기업 활동 제약 - 석유거래시장 미발달
기회 (Opportunities)	**위협 (Threats)**
- 동북아지역의 높은 성장성 - 싱가포르 석유물류의 서남향 진행 - 수요대비 중국 정제능력 한계 - 새로운 석유공급원의 확대 - 환태평양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	- 중국의 대단위 석유비축기지 신설 - 중국의 물류/항만시설 급속 확충 - 싱가포르의 상업용 저장 시설 확충

< 한중일 오일허브 입지여건 비교 >

구분	운임 ($/B)	정제비 ($/B)	잉여정제력 (천B/D)	항비 ($/5만톤)	평균수심 (m)
한 국	1.37	2.33	484	20,157	20.6
중 국	1.38	6.12	-344	32,882	16.3
일 본	1.43	3.12	1,870	35,501	18.3

('08년, 한국해양수산개발원)